



타투인에서 지낸
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
모르겠다.

시간의 감각이
사라진지 오래고..



괴로움과 고독,
슬픔만이 남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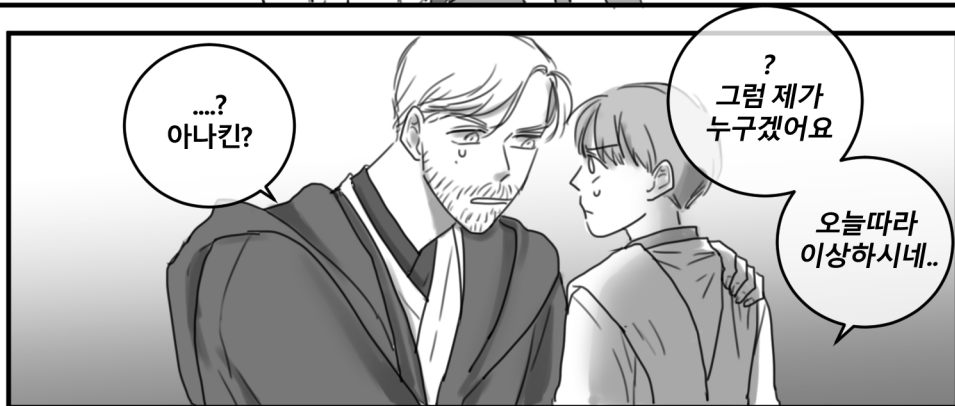
그런 것들을 내가 느낄
자격이나 있는지..



단지
사명을 하나만을 위해
견디고 견디고

또 견디는 것만이..





놀아주기
싫으시면
됐어요

뭐 하루이들도
아니예요

마스터가
약속 어기는거
말예요

대신에
손은 잡아도
되죠?

사막은 밤이
추우니까요

.....
그래

참 그리운
꿈이군..

그러렴



퍼뜩-!

아나킨...?

한동안
스트레스를
너무 받았다..

헛것을 다
보는군

꿈이 아니라니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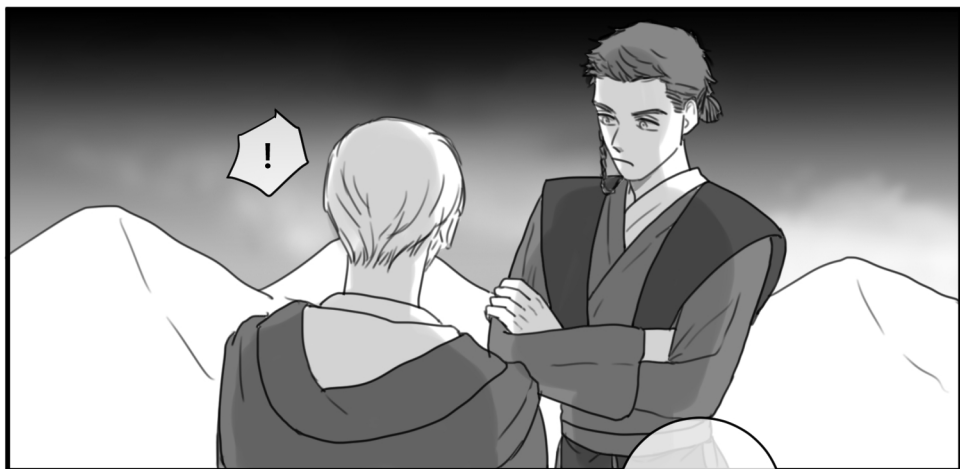
불도
꺼졌군..

다시..

한

한

마스터, 또
저랑 한 약속
잊어버리셨죠?



또 헛것이..

마스터..
안 듣고 계시죠?

왜 자꾸
네가 나타나는걸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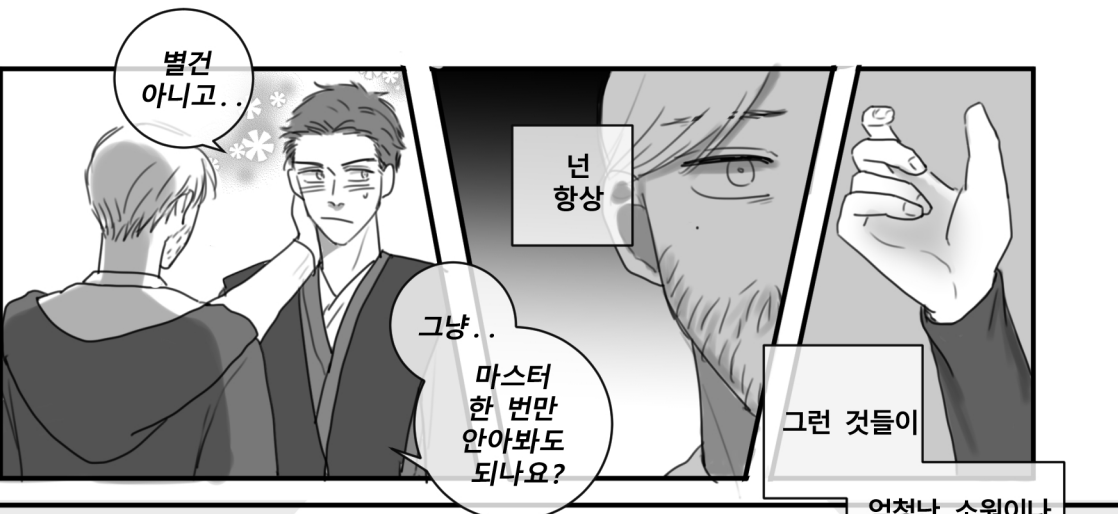


그..
뭐냐..

이번 미션
끝나면
소원 하나
들어주시기로
하셨잖아요..

....
원데
그러느냐?

내가 후회했던
순간들만 말이다..



엄청난 소원이나 된다는
듯이 말하곤 했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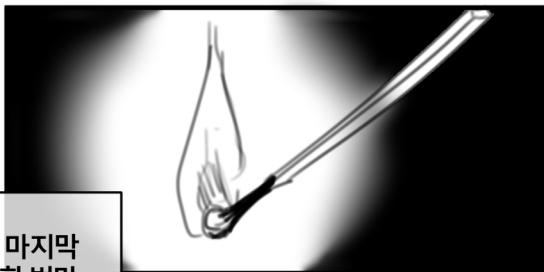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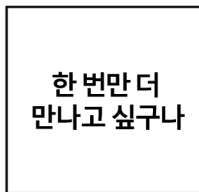
이걸로
너를
볼 수 있는
거라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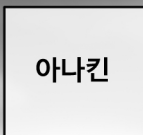
마지막
한 번만..



한 번만 더
만나고 싶구나



아나킨





그때..
이렇게
해주셨다면
좋았을 텐데..



이제는
너무나
늦어버렸지



오비완 케노비

드디어
찾았군

